

근로복지공단, 어린이날 맞이 '드림어스' 소풍행사 성황리 개최

- 바이킹, 롤러코스터 등 놀이시설 운영, 솜사탕 등 간식 제공 이벤트 진행

근로복지공단은 어린이날을 맞아 4월 30일 제1회 소풍가는날 '드림어스' 제1회 소풍행사를 울산 체육인재개발교육원에서 개최했다.

공단은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가 모두 함께 꿈을 키우고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행사명을 '드림어스'로 정했다고 한다.

이날 행사는 첫 회 어린이날 행사인 점을 감안해 근로복지공단 본사가 있는 울산에서 울산어린이집, 울산명촌어린이집 아동 150여명과 교직원, 학부모 70여명 등 약 220명이 참여했으며, 내년부터는 전국 권역별로 순차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전부터 참여 아동들은 바이킹, 롤러코스터, 회전라이다, 레일기차, 미니바이킹 등 놀이공간에서 신나는 놀이와 버블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으며, 솜사탕, 팝콘 등 간식과 점심식사가 무료로 제공되었다.

본사 임직원도 이날 행사에 일일보육교사로 변신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손수 어린이날 선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행사에 참여한 울산어린이집과 울산명촌어린이집 외에도 전국 37개 직영어린이집에서 매년 약 3,800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와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영아보육, 야간연장보육, 시간제보육, 방과 후 보육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하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장애통합 보육(인천남동, 송도, 제주, 시흥, 곰달래, 군산, 광주 등), 장애아 전문보육(울산명촌), 다문화 보육(안산, 제주) 등 취약·특수보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어린이날 행사를 통해 공단 어린이집에서 행복하고 신나는 추억을 만들었기를 바란다. 공단어린이집 운영은 근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우수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담당 부서	복지연금국 일가정양립지원부	책임자	부 장	박연금 (052-704-7351)
		담당자	팀 장	이재원 (052-704-7354)

